

최지만,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과 한솥밥

최지만(32)이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떠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새 등지를 쓴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전날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지만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보내는 트레이드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트레이드는 즉시전력감과 유망주를 교환하는 식으로 성사됐다.

피츠버그는 최지만과 베테랑 좌완 리치 힐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았다. 샌디에이고는 좌완 잭슨 울프, 외야수 에스투아르 수에로, 1루수 알폰소 리바스를 내세웠다. 유망주를 내주고 즉시전력감을 데려온 샌디에이고는 포스트시즌 진출의 희망을 놓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최지만(왼쪽)과 김하성, 사진=연합뉴스

이번 트레이드 결과 샌디에이고에서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두 명이 탄생했다. 샌디에이고에는 김하성(27)이 주전 2루수로 뛰고 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약 2년간 공수주에 걸쳐 맹활약했다. 지난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르는 등 대체불가 선수로 자리잡았다. 이번 시즌에는 1일 현재 홈런 14개, 도루 22개를 기록하며 역대 한국인 타자 중 한 시즌 최다 도루 타이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이번 시즌 20-20클럽 가입도 유력하다.

최지만은 지난 2016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루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피츠버그를 거쳤다. 샌디에이고는 그에게 6번째 빅리그 팀이다.

커리 “나를 가장 괴롭힌 수비수는 즈루 할리데이”

미국 프로농구(NBA)를 대표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인 스테판 커리(골든스테이트)가 본인을 가장 괴롭혔던 수비수를 꼽았다.

1일 '바스켓코리아'에 따르면 커리는 최근 NBC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수비수에 대해 “나를 가장 괴롭혔던 수비수는 즈루 할리데이, 토니 알렌, 론 아테스트다.”라며 “그들과 몇 번 붙어보니 엄청난 수비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힘도 강하고 속도 빠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 선수 모두 엄청난 수비수로 뽑히고 있다. 론 아테스트는 2016~2017시즌을 끝으로 은퇴했고 토니 알렌 역시 2017~2018시즌을 끝으로 NBA를 떠났다. 해당 선수 중 즈루 할리데이(밀워키)만 현역으로 뛰고 있다. 할리데이는 커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뽑을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한다.

2009~2010 NBA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한 커리



▲ 즈루 할리데이(오른쪽)가 스테판 커리의 드리블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는 농구 선수로는 작은 키(188cm)와 왜소한 피지컬을 가졌지만, 슈팅 능력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커리는 8번의 올스타, 2번의 득점왕, 2번의 MVP, 1번의 파이널 MVP 등을 수상했다. 역대 단일 시즌 최다 3점슛 성공 기록(402개, 2015~2016 시즌)도 보유하고 있다.

고진영, 최장 세계 랭킹 1위 질주 제동



▲ 고진영(왼쪽)과 넬리 코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대 최장 기간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던 고진영(28)의 기록이 163주에서 멈췄다. 고진영을 밀어내고 '왕좌'에 오른 선수는 넬리 코르다(25·미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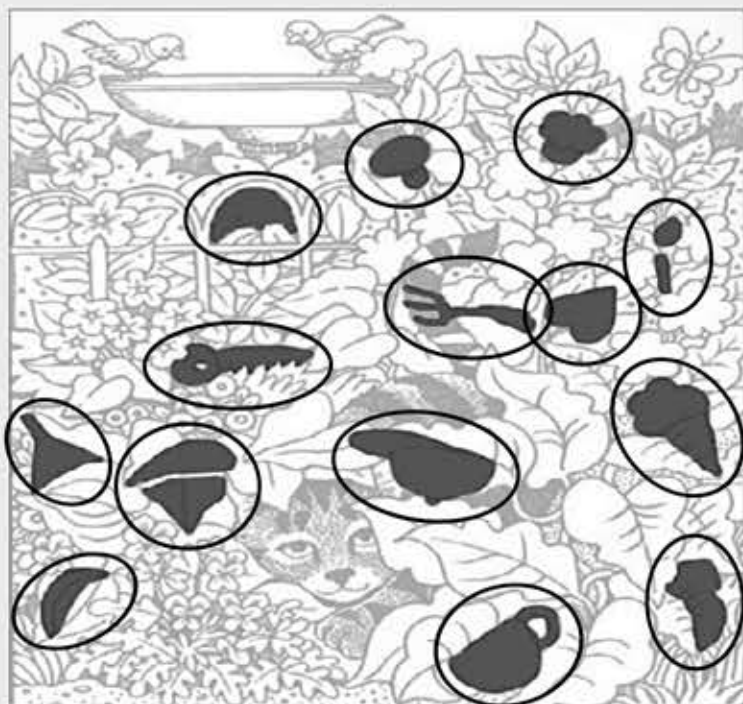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전날까지 1위이던 고진영은 랭킹 포인트 7.54점을 기록해 2위로 내려앉았고 코르다는 7.75점을 받아 세계 1위에 복귀했다. 고진영은 올해 2승을 거뒀고 코르다는 아직 시즌 우승이 없다. 그럼에도 코르다가 1위에 오른 것은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냈기 때문이다.

코르다는 '톱10' 성적을 7차례 기록했는데 그중 6차례 모두 '톱6'에 들었고,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선 3위에 올랐다. 최근 끝난 예비앙 챔피언십에서도 9위에 랭크됐다. 반면 고진영은 '톱10'에 5차례 진입했고 메이저대회 중 가장 좋은 성적은 세브론 챔피언십 9위다. 더구나 예비앙 챔피언십에서 20위로 저조하면서 코르다에게 밀렸다. 하지만 둘의 포인트 격차가 크지 않아 두 사람의 1위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순위에서 김효주(28)가 8위에서 11위로 밀리면서 10위 내 한국 선수는 고진영이 유일하다.

한편 고진영 이전 세계 랭킹 1위 최장 기록은 2010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세운 158주였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